

제10회 중국 성균관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북경 대학교	성명	한글	도문싱	생년월일	1993년 11월 8일
	영문	Peking University		영문	Du Wenxin		학년
							4학년

"천천히 해라"

할머니께서 가셨다, 영원히.

한밤중이었다. 나는 전화에서 아버

지의 울음이 섞인 소리를 듣고 한창

머했다. 빠른게 돌아가는 세상이 그순

간에 갑자기 멈추는 것 같았다. 이상하

게 마음이 짝어질만큼 아프지 않았고

무엇가 내 머릿속, 그리고 가슴속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느낌이다. 갑자기

멈추는 세상엔 나에게도 돌아나는 듯

조용해지고 또 조용해지고 있었다. 그리

고 할머니의 얼굴은 내 눈앞에 떠오

르고 있었다.

그 얼굴은 예뻐다고 할 수 없었다.

세월의 주름이 얼굴에 흔적을 남겼고

사랑은 얼굴에서 모든 수분과 영향을 잔

인하게 빨아 빼만 남겨 만들었다. 하지

만 그 얼굴은 무척 아름답고 평화로웠

다. 딸과 같은 눈에서 눈빛이 반짝이고

두꺼운 입술에서 햇빛과 같은 따뜻한

기소가 흘러나왔다. '천천히 해라' 할머니

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말씀을 나

에게 자주 하곤 했다. 나는 그 눈빛,

그 미소, 특히 그 말씀을 보고 싶다,

아주 많이.

제10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북경대학교		성명	한글	도문심		생년월일	1993년 11월 8일	
	영문	Peking University			영문	Du Wen Xin			학년	4학년

"천 천 히 해 라" 이 것 은 어 려운 대 부 터

하 머 니 에 게 서 자 국 들 었 던 말 이 었 다. 그

리 고 내 기 역 속 에 인 상 이 가 장 곱 았 던

말 이 기 도 하 고 지 금 은 잊 어 버 리 기 수 은

말 이 기 도 한 다. 갑 자 기 옛 날 이 야 기 가

생 각 난 다.

어 려운 대 하 머 니 의 손 을 잡 고 산 책

을 하 곤 했 다. 나 는 토 기 처 럼 말 에 서

꼭 었 고 하 머 니 게 서 뒤 에 서 천 천 히 걸 으

셨 다. "천 천 히 해, 좀." 하 머 니 는 소 리 를

들 려 나 에 게 말 씀 하 셧 다. '싫 음 어 요, 하 머 니.

별 리 대 라 오 세 요.' 철 었 는 나 는 이 령 게

대 답 했 다.

하 머 니 게 서 어 쥔 수 없 이 '그 래, 그 래'

응 답 하 셧 지 만 계 속 천 천 히 걸 으 셧 다. '하

머 니 게 서 연 세 가 많 으 셔 서 빠 르 게 뒤 쫓

수 없 겠 지 : 난 이 곳 거 곳 에 서 뛰 어 갈 수

있 어 서 너 무 나 좋 아!' 나 는 그 때 스

도 이 령 게 생 각 했 다.

뛰 고 나 셔 피 곤 해 긴 나 는 하 머 니 에 게

애 고폴 들 북 르 기 시 각 했 다. "하 머 니, 잠 시

수 고 가 댈 쥔 까 요? 좀 힘 들 어 요." "그 래,

그 래." 하 머 니 게 서 빙긋 웃 으 면 서 대 답 하

셨 다.

하 머 니 는 돌 에 앉 으 셧 고 나 는 하 머 니

제10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북경 대학교	성명	한글	도문심	생년월일	1993년 11월 8일
	영문	Peking University		영문	Do Wen Xin		
						학년	4학년

이 공 속 에서 물 을 가 시 며 사 탕 을 먹 으
면 서 쉬 었 다 .

“아 가 산 책 했 을 대 물 봤 니 ?” 할 머 니 게
서 복 도 겹 게 물 으 셴 다 .

‘ 글 세 ~ 물 봤 어 ? ’ 나 는 머 리 를 금 으 며
열 심 히 생 각 했 는 데 아 무 것 도 생 각 나 지
못 했 다 . ‘ 꽃 을 봤 다 ! 아 니 , 아 니 , 나 무 를

봤 나 ? 아 니 면 나 비 를 봤 어 ? 모 르 겠 다 ! ’
‘ 근 데 할 머 니 게 서 도 보 신 것 이 행 로
였 겠 지 ? ’ 이 령 게 생 각 하 는 나 는 할 머 니 에
게 물 었 다 , “ 할 머 니 는 물 보 셴 어 요 ? ”

할 머 니 는 소 으 로 내 등 을 어 린 만 지 며
천 천 히 말 씀 하 시 기 시 작 했 다 . “ 난 푸 른
하늘 에 서 자 유 롭 게 날 아 가 는 새 를 봤 다 .

갑 호 중 에 홀 로 피 어 나 는 노 란 꽃 을
봤 다 . 그 리 고 따 닳 한 햇 빛 아 래 단 감 을
자 는 고 양 이 를 봤 고 바 람 에 천 천 히 떨
어 지 는 나 못 앞 을 봤 어 . ”

“와 , 신 기 하 다 ! 할 머 니 게 서 이 령 게 많 은
것 을 보 셴 는 데 왜 내 가 못 봤 어 요 ? ” 할
머 니 의 말 씀 을 듣고 나 서 나 는 머 리 를
틀 어 할 머 니 를 바 라 보 며 물 었 다 .

“넌 너 무 빠 르 게 뛰 어 서 이 런 것 못
봤 는 게 참 연 하 지 . 나 는 천 천 히 걸 으 면
서 자연 에서 누 리 고 있 어 서 이 모 든

제10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북경 대학교		성명	한글	도문성	생년월일	1993년 11월 8일
	영문	Peking University			영문	Do Wen Xin		
					학년		4학년	

아름다운 풍경은 봤어. 인생도 마찬가지.

야. 너무 바쁘고 빠른 삶이 아름다운 것을 쉽게 놓칠 수 있어. 하지만 여윌 있게 천천히 살면 평소 볼지 못했던 풍경도 볼 수 있고 평소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설렘, 그리고 행복도.

느낄 수 있어. 자, 눈을 붙여봐."

나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눈을 잠깐 붙였다. '물론이고 물론이지?' 할머니는 천천히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눈을 붙이고 나서 마음까지도 조용해진 것 같았다. 이 세상에 나와 할머니, 그리고 자연 밖에서 아무 것도 없다는 느낌을 얻었다. 봄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갔고 새가 내 귀 옆에 아름다운 노래를 해 주었다. 그리고 따뜻한 햇빛이 나에게 '마사지'를 해 주었고 내 마음은 평소에 안아 주었다. '이 것들을 다 평소에도 내가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의 말씀 덕분에 천천히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알게 되었다. 하지만 크면 할머니가 계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북모닝라함께 큰 도시에 갔다. 바쁘고 바쁘게 돌아가는 큰

제10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영문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두 '빨리'

빨리'라는 말을 입에 붙인다. 나는 다들

처럼 바쁘고 바쁘게 사는 과정에서 자

신을 잃어버렸다. 독재도 빨리 x 빨리 하

고 법도 빨리빨리 먹고 말도 빨리빨리

한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 다. 빨

리빨리 사는 과정에서 성격만 좀 해지고

삶이 좋아지지 않았 다. 인생의 아름다움

풍경을 보는 시간도 없고 기쁨, 설렘,

행복을 느끼는 시간도 없 기 때문 이 다.

한 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라속 사회 이 다.

갑자기 큰 도시에서 떠나, 라속 사회

에서 도망가 할머니가 계셨 던 작은 가

을에 돌아가고 싶다. 다시 새가 노래하

는 소리를 듣고 싶 고 바람이 내 얼굴

을 스쳐가는 것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할머니와 손을 잡고 함께 땀길에서 천

천히 걷고 싶다.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지만 할머니가

나에게 해 주시는 "천천히 해라"라는

말씀은 영원히 내 기억속, 그리고 마음속

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말을 세상 의 모든

사람에게 해 주고 싶다. 천천히 해 아

그리고

제10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번	
오 영 미	학 번
부경대학교	
020	
오 영 미	학 번
김영호	
학 번	020
도모성	

아름다운 풍경은 볼 수 있다. 천천히
 해야 기쁨과 설레임, 그리고 행복 등
 것들 맛볼 수 있다. 천천히 해야 사랑
 아 사랑 간 의 경외, 사랑함, 그리고 사
 람을 느낄 수 있다.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100

200

300

400

500